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의 배경,

제16강 왕권신학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16, 왕권신학입니다.

그럼,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약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혼동하는 일을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도 내용이 흘러넘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배경 개념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왕권이라는 개념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이나 지난 비디오에서 여러분에게 지적했듯이, 우리가 사사기, 그 기간인 사사기를 이상적인 신권정치로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변덕스러운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은 성경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역사서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가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본문은 우리를 왕권의 개념을 신성한 성취로 향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는 이전 영상에서 저는 사사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유일한 신학은 아니지만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부정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왕이 없으면 모두가 옳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정부 상태를 낳은 것이 무정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즉 구약 자체의 용어를 사용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사인 왕이 없을 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가지고 있는 왕을 따르지 않을 때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 다음 제 생각에 세 번째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 나쁜 왕일 때, 그가 법을 장려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일 때 당신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적어도 내 판단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서클에서 많은 혼란스러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다른 패러다임을 여러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권은 바로 에덴동산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왕권 현상을 고대 신학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면 왕은 하나님의 유일한 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신을 대신하여 통치해야 하고, 고대 근동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들을 대신하여 통치해야 하며, 그는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델이 구약에서 복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약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제가 정리한 작업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 법은 윤리적입니다. 이것은 내 동료이자 친구인 Dick Averbeck이 만든 차트입니다. 물론 저는 수년에 걸쳐 이 차트를 사용하여 일하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기록을 하나로 묶는 몇 가지 간단한 원리를 생각나게 하며, 내 생각으로는 신약의 기록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간단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글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코 구약의 유일한 통일 요소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터 아이히로드(Walther Eichrodt)는 그의 장엄한 구약 신학에서 언약이 구약의 중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히가 그것을 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의 내러티브에는 신성한 계획이 있고 그 내러티브는 그 계획의 성취를 향한 움직임을 거침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과 여러 언약을 만드신다는 것이며,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언약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아브라함 언약은 그 약속이 성경 전체의 나머지 부분과 큰 응집력을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살펴보면 12장에서 맺고 소개되고, 15장에서 설명되고, 17장에서 다시 언급되는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역사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언약과 약속이 수반되는 네 가지 사항.

이 네 가지 약속은 구약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가득 채웠을 때, 그것은 물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보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자녀에 대한 약속, 즉 셀 수 없는 자녀, 별을 우러러보고 그 수를 세고, 바다의 모래를 보고, 모래를 세는 것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실 후손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여기 북쪽에서부터 쪽 뻗어 있는 땅입니다. 여기로 와서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여기 위에서 유프라테스 강 꼭대기까지 뻗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있는 애굽 시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그 약속은 고대에는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다소 분열적인 해석적 난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땅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그의 후손들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주 잠깐 동안만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석상의 어려움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 요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율곡이며 이것이 그분의 약속 중 두 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세 번째 약속은 그 중요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의 백성이 이야기의 끝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 이야기의 지지자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정적인 언약백성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언약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은 열방에게 축복이 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의 책에서 반복해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에 대한 축복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사도행전에서 읽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매우 강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약성서에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요점은 그 중요성에 있어 획기적인 것이며, 네 가지 중 마지막이며, 하나님께서 17장에서 하신 한 가지는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일찍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왕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으시는 후속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은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루십니다.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 방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땅은 비옥했습니다. 그 수가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웠느니라. 그러나 물론 출애굽기는 그곳이 잘못된 땅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의 모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특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요.

그리고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이것을 피해야 할 것 같아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당된 시간 내에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모세가 첫 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 그 생각을 소개하고 그대로 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세가 첫 번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왕조의 계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런 지도자도 없이 기능하도록 내버려졌을 때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유명한 언약인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에 이어 다윗 언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계를 통한 왕조 계승을 제도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이전에도 이미 왕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울에게 왕위 계승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최초의 왕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위 계승을 약속하신 왕입니다. 물론, 복음서 작가들, 특히 마태와 누가, 그리고 요한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제시하는 데 다소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신약성서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구체화하는 세 가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새 언약에서 성취를 발견합니다. 즉, 그들은 새 언약에서 그 지속성과 성취를 발견합니다.

즉,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요나의 인격을 통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까운 지역으로만 확장되지 않고, 이제 너희 후손이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구체화되어 있다. 전 세계. 예수님은 자손의 개념을 전 세계로 확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땅에 대한 약속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즉 예수님 자신이 땅을 떠나 아버지 면전으로 가실 때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한 장소.

그래서 땅 개념은 신약에서도 약속으로 이어지지만, 온 세상, 나아가 다음 세상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 세 번째, 자손과 땅과 열방에 대한 축복은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기독교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사도행전을 끝낼 때 성취되었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로마에 왔습니다.

마치 누가가 로마로 가면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들 중 마지막 약속인 왕권 약속은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성취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서신서 전반에 걸쳐 왕족의 용어로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도 사도들은 왕의 뜻을 행하는 개인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은 책을 읽으면 12제자가 각자가 부족 지역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강렬한 색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 전체를 매우 빠르게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 네 가지 약속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서술 부분에 중요한 방향과 구조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산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왕권은 그 네 가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권은 사무엘상 8장에서 행해진 두 번째 선택이나 열등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왕권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시작이자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사무엘상 8장의 메모로 돌아가겠습니다. 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메모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수업 노트에는 심사위원이 끝납니다. 사실 저는 OT 조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배경을 가르치면서 구약 조사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두 이야기는 연대순으로 이 두 이야기가 사사기 서두에 일어났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읽을 신학적 배교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그에게서 도망쳤다는 끔찍한 이야기, 아마도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는 그녀를 데리러 간다. 그들은 벤자민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기브아에 정차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레위인의 첩이 살해되고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레위인은 그녀를 1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는 그녀의 신체 일부를 모든 부족에게 보내어 각 부족이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끔찍한 기억을 갖게 합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 함께 뭉쳐야 합니다. 글썄요, 여러분은 그 큰 내전에서 베냐민이 전멸하여 남자는 몇백 명, 여자는 몇백 명, 남자만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아내는 다른 지파에서 구해야 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거나 사실상 멸절된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이르면 첫 번째 왕이 선택되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마치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유적지의 탁월함과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사실 등의 요소들이 왕조의 기록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그 시점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면, 가능하다면 사무엘상 시작 부분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첫 번째 왕을 선택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죄악임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죄악이라는 데 동의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갖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많은 집단에서 이 구절에 대한 평균적인 이해는 왕권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이스라엘 왕이 그 계통에서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은 2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다시 안내하여 사무엘상 1장과 8장에 도달하기 전의 다음 장이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8장과 왕을 구하는 요청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선택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성막에서 자라났는지 알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사무엘상 전체를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사무엘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전체를 다 읽었다면 여러분은 성막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시다.

이제 사무엘상은 성막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성막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 즉 홉니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부패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홉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제사장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제사장직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부패했고 엘리는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결혼에 대한 우리의 토론과 그 성행위가 어떻게 다산을 창조하기 위해 마법적으로 고안되었는지 기억한다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결혼할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라.

글쎄요, 그것은 분명히 성막에 임명되거나 배치된 두 명의 중요한 제사장에 의해 수행되는 가나안 사람들의 다산 관행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인데도 엘리는 이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당신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의 효과는 가능하다면 사무엘상 1장 1-3절의 것들이 사사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즉 1~3장에서 읽은 내용은 바로 성막, 성막, 지성소가 가나안 종교의 성소로 변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도 읽습니다.

아마도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을 우리 지도에서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해 꼭대기를 찾아 동서로 선을 그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지역을 구성하는 작은 지파입니다.

벤자민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읽은 것은 베냐민이 있는 중앙 산간 지방에서, 그리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유다와 에브라임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대 핵심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관처럼 일종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홉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을 그들의 적들에게서 구원할 계락을 세웁니다.

사사기에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서 홉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손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빼앗아 가나안 종교 방식으로 그것을 마법의 토템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예술을 비웃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세 개의 군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군대를 구성하는 방식이 종종 그런 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군부대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인과 이집트인의 자료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전투에 나설 때 종교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여기에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신의 종교적인 조각상을 들고 앞에 나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집트 예술의 예를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으며, 선지자 아모스에게 가면 아모스는 5장에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놀랍게도 5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행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한 우상 숭배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엘리와 홉니는 이 이교 모델을 모방했습니다. 단, 그들은 하나님의 신상 대신에 법궤를 그들 앞에 옮깁니다. 그러나 방주는 신의 형상이 되는 목적에

부합하므로 그들은 전쟁에 나갑니다. 이것은 너무 끔찍해서 잠시 멈추고 효과를 위해 다시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성막에서 가나안의 생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전쟁을 위한 가나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보다 더 나쁜 놈이네요. 그래서 그들은 전투에 나섰고,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주합니다. 훔니와 비느하스는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리고 엘리는 장막에서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비유적으로는 포로로 들어가는 것이 방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왕이심을 신학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므로,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병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들은 질병으로 너무 고통받게 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궤를 통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궤를 본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 포로생활에서 벗어나 성막으로 돌아오십니다. 좋아요, 바로 거기에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한 이유에 대한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내 경험은 사실상 보편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 요구를 악한 사람들인 것처럼 희화화합니다. 글썄요, 그들의 요청은 죄악입니다.

하지만 왕권이 나쁘기 때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묻기 때문이죠. 지난 테이프에서 우리는 신명기 17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모세가 기록한 내용은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처럼 다른 모든 나라를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에 반대해요.

사무엘상 8장의 정확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최악으로 만든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기보다는 왕을 더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그들은 필사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배럴의 절대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제안한 대로 하기보다는 단순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들을 도우시는 대신, 그들은 스스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음, 그것은 이교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단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제출하는 문제는 왕권이 아닙니다. 왕권 자체가 신성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간단한 말입니다.

왕권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에 동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동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왕을 선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권을 이해할 때 왕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신들이 선택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신에게 충실한 왕이 되기로 선택한 한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은 주변의 모든 국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의견 세트입니다. 제 수업용 전자 필기장에 있는 노트로 돌아가기 전에 두 번째 댓글 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하니 그 구절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이 늙었다고 합니다(8장 1절).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더라 이제 그 짧은 구절은 쉽게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동적으로 그를 따르는 지도자로 그의 아들들을 임명함으로써 스스로 왕권을 창조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2절에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을 하던지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익을 따르며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였다. 관참은.

다시 한 번, 나는 이 구절들이, 적어도 이것이 논의되거나 제시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인쇄본이 아니라 설교 방식으로 제시된 방식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 무시합니다. 강조하기 위해 먼저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문제를 식별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거기에 배치되었습니다. 하나, 사무엘은 늙어서 곧 죽을 것입니다.

둘째,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임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아들들은 부패했습니다.

이는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글썄요, 언급된 구체적인 이유는 사무엘이 곧 죽을 것이고 그들은 그의 타락한 아들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변화를 원하는 두 가지 완벽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는데, 본문은 그 일이 사무엘의 눈에 불쾌하게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윌튼의 훌륭한 교과서인 이스라엘 역사 개관(A Survey of Israel's History)에서 사무엘이 불만을 품은 것은 아마도 그가 자신을 다음 왕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자신을 따르도록 아들들을 임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모든 논의에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요점이 빠져 있습니다. 야벳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글쎄, 왜 그럴까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왕권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정보를 살펴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왕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서의 다음 구절을 읽을 때, 사무엘은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에게 솔직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네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징집병, 전문 전사, 귀족으로 구성된 상비군이 있을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절차와 방식이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마병 가운데에 둘 것이며 그들은 자기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천부장 과 오십부장을 세울 것이며 즉, 그가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들이 그 일원이 되어야 할 상비군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14절에서 왕이 백성의 땅을 빼앗아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 8~10개의 테이프에 대해 저는 메소포타미아의 일반적인 관행이 왕이 모든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신이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시며, 땅은 빌려주실 뿐 팔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고대 근동의 왕권 전통에 따르면 왕은 그들의 땅을 훔쳐서 종들로부터 충성심을 사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아합과 나봇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셋째, 사무엘은 15절과 17절에서 왕이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상비군은 비싸고, 왕궁은 비싸고, 행정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 것은 여기 사무엘상 8장에서 그가 그들에게 코르베 노동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테이프에 넣을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천천히 감기 시작하겠습니다. 코르비 노동은 농장 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자, 코베 노동이 무엇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 3,000피트 높이의 농지일 수도 있고 실제로 해수면보다 낮은 농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갈아엎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쟁기질을 한 후에 그들은 늦은 비를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씨를 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늦은 비는 우리가 봄이라고 부르는 때에 발생하는 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른 비는 10월 말과 11월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에 젖도록 제때에 씨앗을 땅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씨앗이 발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젖지 않으면 씨앗이 발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싹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면 작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농작물을 경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농작물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여름이라고 부르는 6월, 7월, 8월, 9월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르비 노동은 일단 농작물이 완성되면 왕이 여름 내내 그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개월 동안 그들은 말하자면 노예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네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모두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들도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이 네 가지를 반복해서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침내 왕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이제 여러분이 마침내 왕을 따를 준비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왕을 얻게 될지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은 왕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선,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전통에서 왕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가신이나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 나는 왕의 선택을 설명하는 요점을 그럴듯하게 전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성한 계획을 펼치고 계시며 그들에게 위대한 왕들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방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군주제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1050년부터 931년까지 이어지는 짧은 기간인 연합 군주제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세 번의 후속 통치로 구성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치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성경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든 안 이루어지든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유일하고 최대로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권, 특히 솔로몬의 통치를 살펴보면 나는 왕권 침해의 특징이 되는 솔로몬 통치의 여러 특성을 여러분에게 나열했습니다. 솔로몬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지만 그는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왕으로 묘사됩니다.

내가 여기에 제공한 목록을 보십시오. 하나는 결혼을 통한 외국과의 정치적 동맹이다. 우리 모두는 솔로몬의 아내 천 명 중 적어도 300명이 외교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국가들과 조약 동맹을 맺는 기능적이고 심지어 훌륭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매우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서로의 신. 둘째,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인과 히브리인 모두를 달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적 혼합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이처럼 전혀 다른 것들을 하나의 실체로 합치는 멋진 단어이다.

솔로몬이 안고 있던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인구도 많았습니다. 즉, 솔로몬은 중도를 따르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행을 창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종교와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 숭배와 기타 신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의 특징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의 순수성이 아니라 국가의 깃발 아래 이 두 종교가 혼합되고 섞인 것이었습니다. 셋째, 오래된 부족의 경계와 충성심을 완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 구역으로 지리적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이 세 번째 요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솔로몬은 훌륭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3세기 동안 사사들의 끔찍한 문제, 즉 끔찍한 정치적 문제는 부족주의였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존의 12지파 형식을 취하여 12개의 행정구역을 갖도록 변경했는데, 구역의 경계를 보면 구역이 지파의 선상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만든 지역은 지파의 계통을 말살하기 위해 선택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의 12개 선거구는 부족이 아니라 실제로 권력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고안된 현대 정치의 게리맨더링입니다.

넷째, 국가 관료제의 확산이다. 맵소사. 본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두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매일 수천 명을 먹였습니다. 사실, 관료주의와 부가 너무 커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금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를 세어보면 열왕기 첫째와 둘째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장들에서 금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결합.

따라서 관료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거기에서 금이 나옵니다. 다섯째, 비히브리인과 히브리인 거주지 모두에서 노예 노동을 요구하는 호화로운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주의깊게 읽어 보면 솔로몬이 말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코르베 노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모든 백성에게 국가를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여섯째, 국제 무역과 상업의 결과로 예루살렘에는 이교의 정치, 종교 이념이 유입되었다. 솔로몬은 국제주의자였고, 국제주의는 세련되고 다른 이념을 포용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군사력의 위성 국가들의 반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 인상으로 보상된 수입인 외국 조공의 손실로 인해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요점은 솔로몬의 왕국이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된 다른 왕국들이 모두 그랬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 모든 왕국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권의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위층의 관료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가 사무엘처럼 늙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제국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테이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작동하지 않는 관료적 현상으로서의 부족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관료적 현상으로서의 왕권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테이프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반에 걸쳐 왕권에 관해 어떻게 예언하셨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성경적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열된 군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16, 왕권신학입니다.